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출장개요

○ 목적

-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 나가사키 대회 참여관찰 및 주요 세계반핵평화 NGO 인터뷰
- 일본피폭자단체, 한국인원폭피해자구호 일본 NGO, 민단 등 인터뷰
-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자, 핵무기철폐 관련 연구자 인터뷰

○ 기간 : 2023년 8월 3-10일 (7박 8일)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일본

- 원수폭금지세계대회¹⁾, 히로시마대, 나가사키대

○ 출장자 : 김태경 부연구위원

1) 원수폭금지세계대회는 1945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1954년 비키니섬 수폭 실험에 의한 일본 어민 피폭 이후 일본 시민사회가 반핵평화를 구호로 1955년부터 진행한 세계적 범위의 평화연대 대회임. 1965 이후 현재 세계대회는 원수폭금지일본협의회(원수협)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원수금)가 별개로 세계대회를 진행하고 있음.

II. 출장내용

일시	장소	세부일정	비고
8월 3일(목)	인천 히로시마	오전 8시5분 인천공항 출발 9시30분 히로시마공항 도착	
		14:00-16:00 인터뷰 1 한국인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회 - 일본의 한국인원폭피해자 지원 역사와 현황, 연대 방향 - 재일 한국인원폭피해자 역사와 현황	도요나가 게이 사부로 (한국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회 전 회장)
		16:30-18:30 인터뷰 2 히로시마대 피폭 연구자 인터뷰 - 히로시마 피폭자 연구 현황과 평가 - 재히로시마 한국인/조선인 원폭피해자운동 역사	다카하시 유코 (히로시마대)
		19:00-20:00 원수협 사무국 모임	
8월 4일(금)	히로시마	9:00-12:00 히로시마평화기념자료관 방문	
		14:00-17:00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 1 일차 참석	
		17:00-18:00 인터뷰 3 - 핵무기금지조약(피스보트) 제정 과정 - TPNW 관련 ICAN 주요목표 및 활동계획	카와사키 아키라 (ICAN 국제운 영위원회 운영 위원)
		19:00-20:00 인터뷰 4 - 한일 반핵평화 시민연대 역사 - 일본 원수협 등 평화운동 지형	이준규 (IPB 운영위원)
8월 5일(토)	히로시마	9:30-10:30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 2일차 참석	
		10:30-11:30 민단 한국인원폭피해자 위령제	
		12:00-13:00 인터뷰 4 - ‘검은비’ 재판 승소 과정 및 역사적 의의 - 2-3세 원폭피해자 관련 재판 관련 질의	타무라 카즈유키 (히로시마대 명예교수)

		13:00-17:00 원수협 세계대회 히로시마 워크숍	
		17:00-18:00 인터뷰 5 - 반핵평화 한일시민연대 역사와 현황	이성훈 (아시아시민사회 SDGs 파트너십)
		18:30-19:30 인터뷰 6 - 민단 히로시마 한국인피폭자운동 현황 - 아카이빙 정보 공유	문정애 사무국장 (민단 히로시마 지방본부)
8월 6일(일)	히로시마	9:00-12:00 평화공원, 원폭돔 방문	
		13:00-15:30 원수협 세계대회 히로시마 3일차 참석	
		15:00-18:00 인터뷰 7 - 일본의 한국인원폭피해자, 북한원폭피해자 지원 역사와 현황 - 재일 한국인원폭피해자 역사와 현황	가네코 데쓰오 (원수금 대표)
8월 7일(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7:00 히로시마-나가사키 이동(신칸센)	
		15:00-17:30 원수협 세계대회 나가사키 1일차 참석	
		18:00-20:00 인터뷰 8 - 한일 피폭자 시민연대 역사와 의미 평가와 향후 과제	오미정 (평화와통일을 여는사람들)
8월 8일(화)	나가사키	9:00-12:00 원수협 세계대회 나가사키 2일차 워크숍	
		11:00-12:00 인터뷰 9 - 미국 동부 반핵평화운동 연혁과 평가 - 2023년 말 TPNW 체결국 2차 회의 시민사회 준비 현황	Campaign for P e a c e , Disarmament and Security 회장 Joseph Gerson
		13:00-15:00 인터뷰 10 - 일본 원폭피해자 관련 법제도 및 연구 현황 (피폭자 2-3세 포함) - 한일 원폭피해자 실태 및 지원정책 비교	야마구치 히비키 (나 가 사 키 대 RECNA 객원연 구원)

		<p>15:00-17:00 인터뷰 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가사키 피폭자 연구 현황과 평가 - 재나가사키 한국인피폭자 역사와 평가 	<p>히야나기 카즈노리 (나가사키대 교수) 모리카와 유지 (나가사키대 교수) 정미향 (나가사키대)</p>
8월 9일(수)	나가사키	<p>오전 태풍 영향으로 본행사 취소, 후쿠오카 이동</p>	
		<p>13:00-17:00 인터뷰 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원폭피해자운동 연혁과 평가 - 한국인원폭피해자특별법 개정안 관련 논의 	<p>심진태 (한국인폭피해자 협회 합천지부장) 이기열 (한국인원폭피해 자협회 전 이사)</p>
8월 10일(목)	나가사키	<p>오전 인터뷰 내용 정리</p>	
		<p>오후 2시50분 후쿠오카 공항 출발 4시20분 인천공항 도착</p>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일본 피폭자운동과 국제반핵평화연대 최근 동향 파악

- 1955년부터 진행된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와 나가사키대회 참여관찰
-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석 기간 일본 피폭자 증언, 현지 일본 피폭자단체 및 평화 NGO 교류
 - 히로시마대회, 나가사키대회 현지 피폭자 증언 세션과 한국인 피폭자, 마샬제도 등 글로벌 피폭자 증언 청취
 - 현지에서 피폭자 연대 활동을 지속하는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 청년 단체와도 교류
- 현지 일본 반핵평화운동을 포함해, 한국, 미국, 독일, 핀란드, 러시아, 마샬제도, 베트남, 네팔 등 핵무기철폐, 반전평화운동 NGO들과 교류, 피폭자운동의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 핵무기금지조약(TPNW) 확대 관련 토론
 - 핵무기금지조약지지 일본 내 시민사회 활동 뿐 아니라 각국 시민사회 단체, 현재 글로벌 정세에 대한 시민사회 측 진단, 최근 히로시마 G7 회의에 대한 시민사회 C7 활동 등 공유

그림 1 원수폭금지세계대회 히로시마대회 오프닝 세션



그림 2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



○ 일본 피폭자 구제 법제 최신 동향 파악

-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 발표한 일본 피폭자 재판 관련 권위자, 타무라 카즈유키(히로시마대 명예교수)와 인터뷰 진행
- 최근 승소한 일본 내 ‘검은비’ 소송의 진행과정, 승소 결과로 일본 피폭자의 범위가 4-5천 명 확대된 정책적 함의 조명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원폭피해자법, 2016.5.29. 제정, 2017.5.30. 시행) 일부개정법률안(2021.6.2. 김태호의원 등 12인 발의)에서 제기한, 피폭자 2세를 포함하는 피폭자 범위 확대 관련해 법률적 의견 자문

○ 한국인원폭피해자 지원 일본 NGO, 재일 한국인, 조선인 피폭자 NGO 역사 및 최근 동향 파악

- 한국인원폭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회 도요나가 게이사부로 회장, 히로시마민단 문정애 사무국장, 히로시마조피협 김진호 대표,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 가네코 데쓰오 대표 등 인터뷰 수행
- 히로시마민단이 주관하는 재일한국인원폭피해자 위령제에 참석해, 현지 동포사회 피폭자 추모기억 역사와 동향 파악

그림 3-7 히로시마 재일한국인피폭자 위령제



- 일본 시민사회의 한국인원폭피해자 지원 역사, 히로시마 내 재일한국인, 조선인 피폭자들의 고통과 자조 노력, 일본 시민사회의 북한 내 피폭자 지원 활동 시도에 대해 파악
- 관련 아카이브 수집,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현지 연구자 히로시마대 다카하시 유코 박사와의 인터뷰

○ 피폭 역사 아카이빙, 추모기억 노력, 현재적 실천 관련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민사회, 학계 노력 공유 및 토론

- 2023년 현재 일본 생존 피폭자는 113,649명으로 알려짐(NHK)
- 전후 ‘평화헌법’, ‘평화국가’ 상징으로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피폭자 1세대의 고령화, 이들의 원폭, 전쟁의 직접적 기억, 내러티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시민사회, 평화운동 진영의 위기감 높아짐
- 피폭이 터부(taboo)였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피폭자들의 생애사 구술 사업은 시민사회가 처음 시작해 국가적 추모기억 사업으로 확산, 여전히 체계적 아카이브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구술사, 아카이빙 참여 시민사회, 학계의 의견
- 국내 원폭피해자료관, 아카이브 열악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 내 재일한국인, 조선인 피폭 관련 자료, 아카이빙 현황 공유 및 향후 교류협력 필수적

※ 선물수령 관련

- 선물수령 여부 : 예. 아니오.
- 선물신고 여부 : 예. 아니오.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은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선물목록을 제출하고 논의를 거쳐 신고 여부 결정